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3. 28 ~ 2021. 4. 10 제244호



▲ 티벳, 불교사원에서. 제공: WMM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따뜻한 봄날, 잠시 일상을 벗어난 티벳 여인들의 시원 나들이. 햇빛을 가리는 챙모자를 쓰고, 아이를 업고, 모처럼 가벼운 발걸음이다. 무엇을 태우는지 희뿌연 연기가 가득해도 봄 햇살 아래 여인들의 얼굴은 마냥 환하다. 겨우내 겹겹이 때가 묵은 옷을 꺼입고, 물이 적은 고산지대에서 살림을 살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티벳 여인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때때로 해 아래 좋은 날을 본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은 따뜻한 햇살로, 바람으로, 생명으로 주어진다.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서 8:15) [GNEWS]

美 대법원, 자유발언 구역에서 전도한 학생 손 들어줘

미 연방대법원이 조지아주의 그윈넷대학(Gwinnett College) 내 자유발언 구역에서 이뤄지는 전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 같은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최근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학내 자유발언 구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대학으로부터 전도활동을 제지당한 차이키 우즈에그부남(Chike Uzuegbunam)에 대해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8대 1로 우즈에그부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진 존 로버트 대법원장만 예상과 달리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2016년 우즈에그부남은 대학 도서관 밖에서 전도를 배포하려다 학교정책을 이유로 그곳에서 전도지를 배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학당국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이후 그는 다시 학교측에 요청, 자유발언 구역에서 선포하거나 전도지를 배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장소 이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학교측에 의해 또다시 제지를 당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경우 자유발언 구역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학교정책 내용과 함께 전도를 지속한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우즈에그부남은 그윈넷대학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연방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학교측은 우즈에그부남의 종교 토론이 “싸움하는 말을 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방어를 포기하고 표현제한 정책을 제거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학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되자 우즈에그부남은 1달러짜리 명목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법원이 명

목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해자들의 권리침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명목상 손해배상(1달러)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권리 침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상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행위가 제재대상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이 학내 자유발언 지역에서 전도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학에서 이 같은 자유발언 지역 면적이 대학 캠퍼스내 1%도 되지 않고 일주일중 10%만 개방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 때 복음 전파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더욱 힘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자. [G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28)

하나님이 만약 내게 지쳤다고 한다면?

한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려던 선교지에 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은혜 받는 데 지쳤어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은혜 부여하실까봐 무서워요. 제 마음은 식었어요. 지치고 식었다고요.” 그런 맥 빠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강사로 참석한 그 선교사도 이 집회에서 이

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낙담이 났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아침이 되었고, 여전히 지치고, 식었고, 느껴지지 않는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대로는 강의할 상황이 아닌듯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오르기 전, 다급하고 초조하게 놀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질문 하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가만있자, 하나님과 여가온 사람들 사이에 위기가 생겼다는 말인데, 그럼 이 위기는 누구에게 위기이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편에서 지치고, 식었다고 그랬지, 하

나님편에서 그랬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사람의 위기네!’라는 것을 깨닫자,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위기가 하나님 쪽에서 생겼으면 어떡할 뻔 했지?’ 순간, 강사로서는 선교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본능적으로 아주 강한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안되지! 그럴 수는 없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아무개야. 난 너 같은 거 처음 봤다. 내가 참 애를



일러스트=김경민

많이 써봤는데, 나 이제 너한테 지쳤다. 네 얼굴만 봐도 무섭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쯤이면 끝났겠지.’ ‘이만 큼이면 식으셨겠지.’ ‘이제는 포기하셨겠지.’ ‘싫은 순간마다, 우리의 죄악과 반역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

님이 더 큰 본심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식었고 지쳤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G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인도, 에리트레아, 이집트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 크리스천이 됐다든 이유로 마을에서 박해를 받은 한 인도인.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선교회는 최근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인도, 반개종법 통과 이후 크리스천들 어려움 직면

인도 각 주들에서 반개종법이 통과되면서 크리스천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지난 3월 8일,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개종을 강요 또는 회유하는데 대해 무거운 벌금과 최대 10년의 감옥형으로 처벌하는 반개종법이 통과됐다. 앞서 2월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유사한 법이 통과됐으며, 그 외 3개 주에서 개종을 금지하는 새 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결혼을 위한 개종을 무효화하

는 것도 포함하는데, 이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무슬림과의 결혼과 개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도사역자들은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지만, 법적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무고한 허위 고발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자.

에리트레아, 21명 크리스천 체포

에리트레아 수도 아스마라시의 마이 체훗(Mai Chehot) 지역에서 21명의 크리스천들이 지난 주말에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이유와 구금된 장소 등 이들이 처한 구체

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도록, 혹여 심문을 당할 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집트, 크리스천 가정 공격받아

이집트에서 19세 마리안 자매와 가족들이 한 남성에게 공격을 받았다. 지난 주말 마리안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남성이 접근해 추행을 시도했다. 마리안이 저항하자 그 남성은 손에 든 병으로 그녀의 얼굴을 내리친다 이어 그 남자와 그의 가족 몇 사람이 마리안의 집에 침입해 마리안의 연로한 부모까지 공격했다. 마리안이 경찰에 신고해 이 남성이 체포됐지만, 남성의 가족이 마리안과 부모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위협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마리안의 상처가 잘 회복되고, 마리안과 부모님이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마리안과 유사한 일을 겪지만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집트의 크리스천 소녀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덧붙였다. [GPNEWS]

북한 실상 알리는 영어 사용 탈북민 유튜버 증가

최근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영어를 구사하는 탈북민 유튜버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파급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태영호TV)을 통해 영어 방송을 시작했다. 태 의원은 최근 ‘북한이 왜 기독교를 말살했을까?(Why did the Kims exterminate Christianity?)’란 주제로 북한 정권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종교를 박해하지 않고 아예 말살한 이유가 북한 정치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유창한 영어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에도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연미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Voice of North Korea by Yeonmi Park’ 채널이 있고, 북한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평해튼’ 채널을 운영하는 이현승·이현서 남매, 탈북 난민 출신 에블린 씨가 운영 중인 ‘에블린(Evelyn)’ 채널 등이 있다. 특히 북한 지도자 가족에 대한 폭로에서부터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민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소개하는 박연미 씨는 영어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방송을 찾고 있다며, 과거 유엔이나 대면 행사를 통해 북한 실상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평해튼’ 채널을 개설한 이현승·이현서 남매는 본인들이 평양의 학교와 무역회사 등에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 체계 등 흥미로운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

한편,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FSI(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등의 도움으로 영어를 배워 유튜브 방송을 하는 탈북 청년들이 늘고 있다.

박은희씨가 운영하는 ‘북한에서 나온 은희(Eunhee from North Korea)’,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정유나 씨가 지난해 말 개설한 ‘Yuna from DPRK’, 10대 후반에 북한을 탈출해 최근 서울대를 졸업한 허준 씨가 영어 또는 영어 자막과 한국어로 제작하는 ‘북한 사람들(Humans of North Korea)’ 채널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탈북민 영어 유튜버의 원조 격인 허준 씨



▲ 탈북민 유튜버 허준. 출처: 유튜브 채널 CLAB 캡처

는 구독자가 24만 명에 달하며, 북한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과 포용을 주제로 한 동영상은 조회 수가 1000만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에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영어 또는 영어 자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탈북민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많은 탈북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려스럽고 안타깝지만, 탈북민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 비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이 비난을 쏟아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을 옹호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는 한국 정부를 깨워주시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참혹한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이웃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도합니다.

美 학교, 성중립 언어 사용 권장... 엄마, 아빠, 부모 안돼

미국 뉴욕 맨해튼의 K-12(유치원~고등학교 통합) 학교인 그레이스 처치 스쿨이 캠퍼스 내에서 ‘엄마, 아빠, 부모’보다는 ‘성인, 사람, 가족, 보호자’라는 ‘포용적인 언어’, 즉 성중립 언어를 권장하는 언어 사용 지침을 규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과 결혼제도, 가족형태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학교의 정책을 돌이키게 하시고, 인본주의 세계관과 더불어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사탄의 악한 시도를 파해주시시오. 미국의 교회들이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외쳐서 진리에서 벗어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간구합니다.

레바논 화폐 가치 폭락... 국민 절반이 빈곤층

레바논 베이루트의 암달리 시장에서 1달라가 종래 환율의 10%밖에 안 되는 1만 5000파운드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레바논은 작년 8월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에 이어 기독교,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등 세 정파 간의 갈등으로 정부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레바논의 인구 약 600만 명 중 절반 이상은 빈곤층으로 알려지고 있다.

희망을 잃고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가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3월 29일 ~ 4월 10일

- 3월 29일 ~ 4월 3일
 - ▶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3.29-4.3(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3.29-4.5(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29-4.2(14~17시)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3.30(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3.30.4.1~3(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2(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4.2(13~17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 작은교회(강**)010-7129-7224, 4.2(12시)~6(12시) ▶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4.3(09~17시) ▶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1교회 진행중.

- 4월 5일 ~ 4월 10일
 -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4.5(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4.5~9(0~24시)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4.5~9(10~20시) ▶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4.6,8~10(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8(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4.9(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4.9(13~17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4.9(10시)~10(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3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267-4365

기획 | 무슬림과 함께 사는 이야기 (2)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예배 중, 교회를 둘러본다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처럼 X국도 한 주간의 공휴일은 주일(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다. 이날 집을 나와 고요한 거리를 지나면서 '여기가 X국인가?'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소리와 사람들로 분주한 여느 날과 달리,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들과 몇 안되는 사람들만 눈에 띄는 고요한 아침이기 때문이다.

매일 이런 아침이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국제교회로 향한다. 그러나 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경찰들을 보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간 듯 긴장감이 감돈다. 이들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교회 출입구에 상주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곳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기도 한다. 때문에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교회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

X국은 이슬람 군대의 침략으로 그들에게 정복당한 후 이슬람 국가가 됐다. 그리고 1400년 이상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 북부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로 이뤄졌다. 그러나 그들은 이슬람의 침략으로 항복하게 되었고,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했다.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무슬림이 되어야만 했다. 이슬람 군대는 꾸란에 근거하여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꾸란 4:89, 8:67, 9:123, 47:4...). 당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이 되어 살든지, 아니면



▲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 출처: 한국 순교자의소리(VOM)

수치와 핍박을 당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생명을 부지하든지 택해야 했다. 특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꾸란 9:29절의 명령에 따라 지즈야(인두세)를 낼 때 비참함을 느끼도록 핍박하였다. 요즘 이 정도의 박해는 없다 하더라도 그 땅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항상 불공평한 사회와 국가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래전 그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착할 무렵, 영어학원에서 공부하던 기독교인 친구가 있었다. 스무 명 정도 되는 우리 반에 기독교인은 나와 그 친구 둘뿐이었다. 학생들은 내가 그 당시 그곳에서는 흔하지 않은 동양인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했기 때문인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이들은 밝고 유쾌했고, 몇몇 학생들과 연락처도 주고받고,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수업이 마친 후 기독교인 친구는 자주 나를 염려하며 경고하곤 했다. 기독교인인 나는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처럼 보였는지, 어느 날은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무슬림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말들을 들어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로부터 "여기는 이슬람 국가이고, 무슬림 땅이야. 그러니 기독교인은 나가!"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내가 그 땅에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않았다. 다만 '날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나라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강산이 몇 번 변하는 시간을 그 땅에 살면서, 그 친구의 말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져 갔다.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갈수록 그 땅에서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순교적 삶으로 다가왔다. 1400년이 지나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당하는 불공정과 불공평과 억울함과 크고 작은 핍박 속에서도 그 땅에 아직

도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러웠다. 또 당신의 자녀들을 그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 놓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땅의 자랑스러운 성도들

그 땅의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킨다. 공휴일인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본 예배는 주일에 드린다. 일반 국가에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일요일)이다. 이런 주간 일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주일을 지킨다. 주일에 가게와 병원 문을 닫고, 기독교는 금요일, 주일에 쉬고, 토요일에 정상 가동하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한다.

X국에서 교회 테러는 잇을 만하면 터졌다. 테러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탄절과 부활절 전후에 집중 발생하곤 했다. 그래서 이 무렵이면 긴장감이 훨씬 강하게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다. 부활절 전 주일은 종려주일로, 한국에서 고난주일로 조용하게 지키는 것과 사뭇 다르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찬양하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잎으로 십자가와 장식물을 만들어 나누는 축제 분위기로 바뀐다. 몇 년 전, 이런 종려주일에 두 곳의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교회는 피로 물들었다. 한 주 뒤에 있을 부활주일,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

에 안 오면 어떡할까 염려가 가득했다. 그러나 내 연약한 믿음과 달리, 두려움을 이기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사랑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다!

그렇다. X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교회를 둘러보기도 한다. 만약에 오늘 예배 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면... 폭탄이 어디서 날아올까? 길과 맞닿아 있는 벽에서 터질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던질까? 등등...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곧바로 자세를 바로하고 마음을 가다듬곤 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X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X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평가하고 복음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편견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X국 그리스도인들을 중동,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추수하는 일꾼들로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GPNEWS] 김민음(북아프리카 사역자)

기획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악법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서울 송파) 등이 발의,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최근 펜 앤드마이크 기고문을 통해, 개정법안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돕기보다 가정의 개념을 뒤흔들고 욕망을 부추기는 위험한 내용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훼손하면 피해는 자신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켜온 존엄성과 가정의 가치를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정이

라는 개념도입이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짐승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짐승과 달리 존중받는 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이 같은 인간의 인격과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질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삭제했다. 그러나 가정을 가족으로 변경하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족을 가정

으로 간주, 기존 민법의 가족과 관련된 규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는 가정의 전제가 사라지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최근 국내에서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족제도를 뒤흔들려고 하는 정치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있다. 이들 사상의 저변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을 비롯 인본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진화론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돌맹이나 먼지 같은 것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진화론은 그동안 다양한 과학

적 실험과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중간화석이 발견된 바 없는 비과학적 신념체계일 뿐이다. 따라서 진화론은 인간 생명의 탄생을 창조의 신비로 바라보지 않고, 남녀의 성관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물 정도로 바라보게 한다. 그 결과, 태아의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낙태할 수 있는 '혹'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한다. 따라서 진화론은 사실상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하지 않는 욕망에 따른 유기체 정도로 인간을 전락시킨 '진화론교'가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육기관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창조론 교육을 비롯,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더욱 구체적으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정의 개념을 뒤흔들고 있다. 출처: unsplash

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 땅에 뿌리내린 이 같은 인본주의 사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구원계획을 포함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를 삶의 근간으로 여기는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 같은 현실의 위기를 인식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51)

사회진화론으로 대량학살 확산... 경쟁과 살상에 정당성 부여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 진화 역사를 사실로 간주하고 이를 개인과 사회에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졌다. 그것이 사회진화론(Social Evolution)이다.

미국은 유럽보다 늦은 1960년에 서야 학교에서 진화론을 강조했고, 이것이 1963년에 공립학교 기도 금지로 이어졌다. 진화론의 보급 이후 가장 먼저 성문화가 변화했다. 다윈과 그의 이론을 따르는 자들은 성 선택을 가장 중요한 진화 과정 가운데 하나로 꼽았으며, 이는 성 개방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억제되었던 혼전 성관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어 미혼자녀와 낙태가 증가했다.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 훼손되어 이혼율이 증가했다.

1859년 출판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이어서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 지질시대표가 만들어지자(1872년) 진화론적 사고가 견고해져 유럽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2차 세계대전과 이데올로기의 몸살을 앓았다. 경쟁과 살상은 삶의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졌고, 이를 사회와 국가 간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나치 독일은 철저하게 진화론으로 무장된 단체가 되었다. 히틀러는 다윈이 언급한 '생존경쟁(survival competition)'을 '투쟁(fight)'이라 더 급진적인 단어로 바꿨다. 독

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제국주의는 모두 진화론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임으로 발생한 극단적인 사고들이다. 진화론으로 인한 극단적인 사고들은 6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20세기 들어 또 하나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이다. 칼 마르크스는 1960년에 '종의 기원'을 읽은 후 기존에 가졌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레닌이나 스탈린은 모두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며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수용했다. 이들의 독재 하에 수천만의 러시아인들이 사망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집권 당시 수천만의 국민이 사망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한 독재자 정권 하에 가장 많은 사망자로 기록된다. 또한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은 당시 인구의 30% 정도에 이르는 200만 명을 죽이는 '킬링필드'를 남겼다. 베트남과 북한도 이와 비슷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단지 공산주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진보적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은 '자신의 성실성과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고가 '상대 기업을 죽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변



▲ 2013년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서 일어난 폭탄 테러 현장. 출처: cryptome.org 캡처

하기 시작했다. 카네기는 크리스천이었으나 진화론을 접한 후 자유방임으로 돌아섰다. 록펠러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그대로 믿는 소위 유신론적 진화론자였다.

진화론은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sin)'를 '본성(nature)'이라고 정당화하며, 이런 사고의 전환을 진보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정당화'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각 나라와 사회에 성적 문란, 낙태, 이혼, 폭력, 경쟁, 전쟁 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화론이 과학, 법칙, 역사, 사실 등의 수식어를 부여함으로써 성경 자체를 공격하는 도구가 됐다. 성경과 상반된 역사를 제시함으로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게 했고 성경에 대한 권위가 떨어졌다. 여러 신학자들은 성경과 진화론을 섞어서 믿으려는 신학을 만

들었다. 또 진화 역사를 사실로 놓고 성경 역사를 바꾸려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다. 이런 신학은 교회가 성경을 부정하게 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무엇이 죄인지, 결혼,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배울 수 없게 돼 진리에서 멀어져 버렸다.

기독교는 각성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20세기 초의 끔찍함을 겪은 각 국가와 사회는 20세기 중반부터 각성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각성'이라는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과서에서 생존경쟁에 의해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배우고 있다. 기독교는 각성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

스도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의 각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실 때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여지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진화 과정에 들어있는 경쟁, 살생, 성 선택 등을 이용하신 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갈 1:8~9). 이를 볼 때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있는 진화론과 성경을 함께 믿자고 하는 타협 이론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다. 사회진화론을 다루며 독자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GPNEWS]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회장)

복음의 능력

하나님 인식의 회복

만일 우리 몸부림의 결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면, 이런 가짜 믿음으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가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할 뿐이다.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인식(認識)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 인식의 회복!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내가 좋은 설교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잘 믿느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존재 이유,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밖에서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인생을 낭비한다.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GPNEWS]

하나님을 향한 열정 (A.W.토저.2016)에서 발췌



선교 통신

기도만 했는데 무슬림 이맘이 찾아와... "예수님 알고 싶다"

K국에서 찬양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옆집에 현지 경찰 출신 이웃이 있어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잠금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울리는 찬양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꼭꼭 닫은 창문을 뚫고 터져 나오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

작년 한 해, 이곳에도 어김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나라 전체가 록다운으로 이동이 제한된 비상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선교사역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선교는 사역이 아니어도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지난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



▲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을 위한 30일 기도를 했다. 이웃 나라 사역자를 통해 얻게 된 러시아어 기도정보를 현지 사역을 돕는 사역자에게 전해주었다. 마침 필요한 기도정보라고 반가워하시며 유용하게 교회 지체들과 사용하겠다

고 하셨다.

라마단 기간이 지나 그 사역자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하는 동안, 현지 사역자 한 분으로부터 무슬림 이맘이 찾아와서 예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가정 모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싶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실재를 경험했다고 전해주시기도 했다.

여름이 되어 잠잠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오히려 이곳에서 가장 유행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코로나로 병마와 싸우는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가족 모두가 돌아가며 고열로 시름하는 상황이 진행되던 중에, 중환자실에 계신 사역자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갑작스런 소식에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옆

에서 지켜보고 계실 사모님이 열려되기도 했다. 장례 또한 극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집례하고 마쳐야 했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에 대한 방역상황에 무감각해졌다. 한국에서 치료 과정을 마친 사역자들이 하나둘씩 이곳으로 복귀하고 있다.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영적전쟁의 한복판으로 돌아오셨다. 사실 죽기를 각오하고 오는 길들이다. 여전히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심자의 진리가 어김없이 생명으로 흘러가야 함을 말씀하신다. 이곳에서 외쳐지는 복음의 함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님께 영광! [GPNEWS]

K국=알마스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못 듣고 지옥에 가게 할 순 없었어요”

복음을 외치는 권순만 집사(다인교회)



© 복음기도신문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한 장남. 아직은 한산한 아침, 전도를 하기 위해 4명이 모였다. 같은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다. 거리를 걸어가며 한 사람씩 외쳤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십시오.” 거리에서 소리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가게 안에서, 아니면 떨쩍이 떨어져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보였다. 취재팀도 듣는 자가 살아나길 함께 기도했다.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권순만 집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되셨나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한 권사님의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예요. 6촌지간이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예수 믿죠.’ 대답했더니 ‘지금 당장 죽으면 천당 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묻는데 교회에서 뭘 하고 있고, 직분이 뭐고, 이런 것만 나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답답한 대답이었어요. 사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음담패설 좋아하고 술도 못 끊는 집사였어요.”

“예수 믿으세요?” 당황스런 질문을 받다

-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받으셨네요?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궁금합니다.

“저는 한량처럼 살았어요. 술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했어요. 사진관을 하긴 했지만 수입이 많지 않기도 하고, 경제적 개념도 없어서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 뒀어요. 제가 정신 못 차리니까 저를 사람 만들려면 아내가 일을 그만뒀어 한다고 주변에서 조언을 해줬대요. 상황이 그러니 저도 돼지 쫓고 치우고, 학원 차량 운행도 하고, 사진관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도 죄 지을 것들은 다 지었어요.”

- 주님을 만난 계기가 궁금하네요. “하루는 병원을 하시는 6촌 형님이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살지 말고 병원 밥 먹으라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병원 허드렛일을 했어요. 하루는 형님께서 이왕 병원 밥 먹는 거 의료기사 면허가 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셔서 대학에 입학해 방사선과에 들어갔어요.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는 공부하면서 면허도 취득하게 됐어요. 학교에 오가는 시간 동안 아내가 휴대폰에 저장해 준 설교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 설교가 제게 많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내가 소망 없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음란물을 좋아했는데, 그게 죄라고



▲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 복음기도신문

여겨지지 않았어요. 퇴근길에는 늘 손에 술이 들려 있었고, 집에 와서는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집이 이게 뭐냐. 하루 종일 뒤흔냐.’ 아내가 마음 아파하는 걸 알지만 아픈 말들만 더 골라서 했어요. 저의 답답한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아내를 더 두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 복음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었나 보네요?

“20주 동안 권사님과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인정되면서도 화가 났어요. 실컷 성경공부하고 나오면서 편의점에서 소주 하나를 사들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술을 거의 매

일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10주쯤 됐을 때, 어느 날 출근하는 데 갑자기 제가 술을 끊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뒤로는 술을 안 먹게 됐죠.”

어느 날, 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다

- 한순간에 술이 끊어지다니, 놀라운 일이네요.

“그 중독에서 빠져 나왔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 스스로 힘들어했어요. 늘 마음에는 불평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었어요. ‘분명히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는데 이 불만족과 원망은 뭐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되뇌고 외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는 영

면서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살았던 존재였는지, 말씀과 생활하는 여러 영역을 통해 보게 됐어요.”

- 매우 심도 깊은 훈련이었군요.

“훈련 마지막 과정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어요. 팀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 사람씩 말씀이나 복음의 내용을 외쳤어요. 외치다 보니 이런 전도가 왜 필요한지 알겠더군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밖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거부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힘들어도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가게 할 순 없었어요. 훈련을 마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전도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말씀으로 기도해야겠다고도 생각했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미 가족들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나누지도 않았는데 주변 동역자들이 말씀 기도를 함께 하자고 권유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기도모임이 생겼어요. 그뿐 아니라 전도를 할 때도 주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예비해주지 않으셨다면 연약한 저로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훈련을 마치며, 전도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 전도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집에 돌아와서 장남에 전도를 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막상 장남이 되니까 못하겠더군요. 두려웠어요. 그렇게 처음 장남은



▲ 동역자들과 거리 전도. © 복음기도신문

못나갔어요. 그런데 다음 장남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그 다음에도 못했어요.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카 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즉각 움직였다는 말씀이 나오더군요. 즉 시라는 말에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아브라함처럼 즉시 움직이긴 하겠다고 기도하고, 땅밧기 기도라도 하겠다고 마음을 나섰어요. 막상 나가보니 시장이 매우 조용했어요. 한군데 사람이 모여 있길래 가서 그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도저히 입을 뿔 엄두가 안나더군요. 아래 쪽으로 내려가 배회하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쳤어요. 그러고는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외쳤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나요. 그러나 그게 전도의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아내와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전도를 하고 있어요.”

- 전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사람들의 시선과 한마디씩 던지는 말들이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주눅이 들고 심장이 요동하는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요. 외치기 싫은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복음을 외치죠. 다른 공격도 있어요. 아내를 비롯한 다른 지체들이 선포하는 내용은 은혜가 되는데, 내가 선포하는 말들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지체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제가 선포하는 복음이 다시 저를 움직이게 하고, 이런 공격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요.”

-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걷는 게 현재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 뚜렷한 게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지는 않으세요. 다만 나의 원함인지, 주님의 원함인지 알 수 있는 건 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영광받고 싶어 하는 일은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있어요.” [GPN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pn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 (4)

심령의 사형선고를 받으라!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를 맞이할 때, '에이! 죽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죽음은 맘대로 오지 않는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러운 정욕과 맞바꾼 음탕하고 소망 없는 탕자에게 육적인 향연을 가져다준 모든 것들은 그를 비웃고 떠나갔다. 그는 밤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돼지 치는 집에 갔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 돼지 치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서 그저 밤이라도 얻어먹어야 했다. 마침 흥년까지 닥쳤다. 음식은 커녕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라도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다. 죽어지진 않고 비참한 지경에 이른 그에 대해 성경은 말한다. "비로소 궁핍한지라"(눅 15:14b)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눅 15:17~19)

이 말씀은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용서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놈이구나,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난 끝이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라는 말이다. 부흥회나 회개 집회에 참석한 수준이 아니었다. 더 갈 데가 없을 정도의 바다,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심령,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목숨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그에게 떠오른 것은 아버지였다. '내가 한 짓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지만 가서 부



일러스트=이예린

탁이라도 해보야겠다. 원래 아들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 많은 품꾼들 일 시키고 밥 먹이듯이 저를 그렇게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얘기나 하러 가야지.' 그러나 선뜻 나설 수도 없었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가기에는 장애가 너무 많았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지? 잘못했다고 할까? 잠깐 미쳤다고 할까?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내가 뭐라고 해야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는 근거가 없었다. 그가 택한 것은 '그저 불쌍한 품꾼의 하나로 보여주십시오.'였다.


드디어 그곳을 박차고 일어난다. 발작을 일으키도록 열광하던 광란의 터, 육신, 병든 자아의 정욕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사시며, 죄 중에 끌려 다니면서도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던 죄인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누가 여기서 돌이켜 본성을 거슬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
병든 자아의
정욕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심령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2018년 4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 따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싶어요! 작은 외마디라도 이 옷의 글귀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선교단체, 학교 등 단체 주문, 제작 소량부터 대량까지 주문받습니다. 최소한의 마진은 적용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010-8766-9129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문화 예술 선교단



Blue Fish Company
Stage & Film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기도모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수도권에서 모입니다.

블루피쉬는 병에 담겨 있을 때는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닷물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본래의 파란 빛을 발합니다.

블루피쉬컴퍼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 열방과 다음세대에게 드라마로 복음전파.
-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음전파.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분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문의 | 010-3272-6251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아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있어요

신앙훈련을 마칠 즈음 주님이 인도해주시는 곳이 어딘지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며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손목에 생긴 건초염 때문에 ‘쓸모없는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한 기독교회에서 교육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고는 싶었지만 특별한 재능이 없어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들었던 메시지가 기억났다. 나의 한계를 넘나드는 여러 힘든 일들을 겪으며 완전히 무너져 있던 나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어디에서든 그 사랑을 힘껏 외치고 전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했다.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한 말씀을 주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요 20:18) ‘야야, 내가 나를 만났지 않니? 네 안에 실제 된 그

기쁨을 가서 외쳐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증인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다. 감사와 은혜가 넘쳤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집에 돌아와 중학생이 되는

깜깜해졌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사역을 위해 노트북을 구입해야 했다. 구입을 위해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생각했다. 선생님들은 각자의 특기가 있는데, 나는 딱히 특기도 없고, 복음을 가르치기는커

나는 계속 주님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사실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였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원래부터 자격이 없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긴장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부르신 주님을 기대하게 되었다. 부르심의 길, 나는 할 수 없지만 부르신 주님을 매순간 주목하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들 앞에 서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루에도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과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 [GNNEWS]

마리아 권



일러스트=고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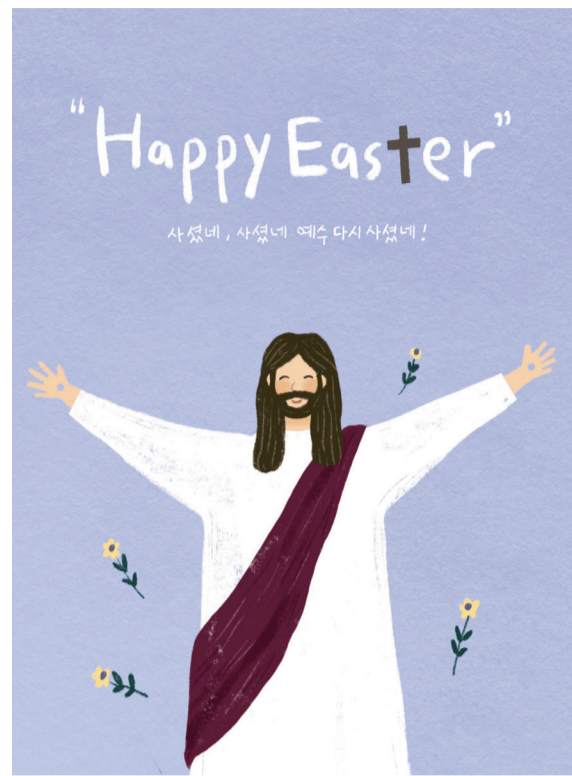
조카와 일주일을 함께 지내며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약간은 어려운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집을 정리하고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면서 더욱 앞이

녕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다. 선생님들이 이곳에 헌신하게 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더욱 이곳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림 묵상



행복한 부활절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갑작스런 죽음에 정신없이 장례를 준비했다. 안식 후 첫날 동이 트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 28:6)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의미다. 그것은 곧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날. 행복한 부활절! [GNNEWS]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두려운 북한... 영화 유포했다고 주민 4명 공개총살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독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평양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주민 4명이 공개처형됐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한국의 문화콘텐츠 유입·유포 행위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사동구역 대원리사격장에서 평양시 전체 인민반장들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총 4명의 주민에 대한 공개총살이 집행됐다. 처형된 이들은 형제사 구역 하당동에 살던 주민들로, 50대 초반의 장모 씨와 40대 후반인 그의

아내가 주도해 한국 영화와 예능·가요 프로그램들을 SD카드에 담아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이곳에는 일명 ‘가대기담베라’ 불리는 담배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번에 처형된 장 씨 부부 역시 이곳에 살며 담배공장과와 뒷거래를 통해 담배씨를 받고 국경 쪽에서는 수입 담배종이를 밀수해와 수년간 전문적으로 담배 모조품을 생산·판

매하는 일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들은 장 씨 부부의 형편이 갑자기 나아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들이 유통하는 물건을 샀었다. 이들이 거래하던 상자에 SD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고, 그 SD카드에 각종 한국 영상물이 담겨 있는 것까지 확인한 이웃들이 장 씨 부부를 보위부에 신고했다. 장 씨 부부에게서 돈을 받고 SD카드를 복사한 30대 2명도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거짓에 기반한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에서 사회의 모든 체계는 허구

와 거짓으로 이뤄져 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회, 따라서 서로가 의심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 자유로운 정보획득과 경제활동은 금지돼 있다. 북한 당국은 자

유로운 체제를 동경하는 주민이 더 늘어날까봐, 이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갔다. 이러한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GNNEWS]



▲ 북한 평양의 거리. 출처: tongiltours.com 캡처

밀수·탈북 잇따르자 국경 봉쇄... 24시간 주민 감시도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무역이 곧 재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지역에서 밀수가 이뤄지는 등 다소 느슨한 분위기가 나타나자 북한 당국이 또다시 감시를 강화하고 봉쇄조치에 나섰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경 지역 국가보위성 인력을 증가시켜 밀수 또는 불법 월경이 이뤄진 지역에 보위부 감시 인원을 확대했다. 이달 초 한 달간의 봉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삼지연시에서 밀수 행위가 적

발되자 당국은 인원과 물자 등의 이동을 전면 차단하는 등 또다시 봉쇄령을 하달했다. 다른 국경 지역도 마찬가지다. 북한 당국은 봉쇄령을 내릴 때마다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밀수 또는 불법 월경 행위가 30일간 이동금지라는 강력한 봉쇄령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 2월 탈북(3명)과 밀입국(1명) 사건이 발생 한 양강도 대흥단군의 경우엔 마을 주민을 24시간 감시하는 전임 감시조 성원을 대

폭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위부원들은 각 인민반장에게 주민들에 대한 동향자료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나 탈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감시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국경이 폐쇄되면서 경제적인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 전임 감시는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GN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얀 리벤스의 <이삭의 희생>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얀 리벤스(Jan Lievens)는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대에는 렘브란트와 경쟁할 정도로 유명한 화가였다고 한다. 렘브란트와 고향도 같고, 한 스승에게서 배웠으며, 5년간 스튜디오를 나눠 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진다. 둘 사이의 차이라면 리벤스가 렘브란트보다 표정에 과장이 없는 더 사실적인 인물을 그렸다는 점이다.

그런 리벤스의 작품 <이삭의 희생>은 여러모로 독특한 그림이다. 카라바지오, 렘브란트, 루벤스 등 많은 화가들이 이삭이 죽임당하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을 그렸던 반면, 리벤스는 이후의 순간을 그렸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와락 껴안으며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두려움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이삭의 눈은 구원의 음성이 들려오는 방향을 이리저리 찾고 있다. 칼을 찡갈 정신도 없이, 놀란 아들부터 끌어안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노라니,

저렇게 아끼는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잡을 생각을 다 했을까 싶다. 그리고 보면 육체의 죽음에서 건져진 이삭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이 심적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솜양 덕분에, 부자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솜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모두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대속 제물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판당할 그 절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얀 리벤스, <이삭의 희생> (The Scarifice of Isaac), 1638년, 캔버스에 유화, 180x136cm, Herzog Anton Ulrich-Museum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성경에서 벗어난 극좌 이념... 미 복음주의 교회에 침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아포스톨로스교회 담임 마이클 유세프(Michael Youssef) 목사가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극좌 이념이 복음주의 교회에도 침투했다며 이런 경향을 보이는 소위 '깨어난(woke)' 복음주의 목사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980년대 주요 성공회 교단이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나 결국 동성결혼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다면서 좌파 이데올로기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며 최근 몇

년간 복음주의 교회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72세의 그는 "내가 주류 교단에서 했던 바로 그 전문가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같은 주장과 단어들이 매우 정확하게 반복된다는 점이 있어 깊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텔레비전 기독교 사역인 '리딩더웨이(Leading the Way)'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인기 있고 육체에 호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깨어난 문화(woke culture)'의 함정에 빠지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며 "깨어난 문화에 굴복하면 문화나 사

회에서 굳이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현대 많은 복음주의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매우 대중적인 메시지"라고 전했다.

그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과 관련, "젊은 목회자들은 이것이 속임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매우 미묘하고 영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라며 "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교회 내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는 사람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한 형태"라고 정의했다. 또 "피억압자와 억압자의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제 여기 애틀랜타에는 백인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사립 기독교 학교들이 들어섰다.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 그(아이)들은 죄가 없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젊은 목회자들이 성경적 진리를 버리는 표징(sign)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지 않는 것과,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 굴복하는 것,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주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세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과 체류자가 되기를 기대하라.'는 것"이라며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일부가 아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여기에 두셨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깨시민'은 '깨어난 시민'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잘못된 인식과 세계관의 율타리 안에서 갇혀 있다가 현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시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선은 인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좌익적 편견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야교회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교회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신앙의 고백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GNPNEWS]



▲ 마이클 유세프 목사. 출처: worldandeverything.org 캡처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3. 4 ~ 3. 17 (가나다 순)

개인
권순호 김다경 김득기 김사희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유남 박성규 안민자 은종숙 정관재 정금자 정영숙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영신 최민주 무명

교회 및 단체
고현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웹 오예그교회 양택원감리교회 오이코노모스미 참종양터라교회 토론토한인침례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